

## 高學歷者 失業 문제와 就業 격차

宋 柄 淳

(嶺南大 教育學科)

최근 문교부가 집계한 '88년도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기관 총 졸업생은 27만 5천 7백 65명이라고 한다. 이들 졸업생 중 65.5%인 18만 4백 77명이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진학자 2만 1백 28명, 군 입대자 3만 4백 86명을 제외한 순수하게 직장을 구한 사람은 12만 9천 8백 63명으로 47.1%에 불과하다. 또 순수 취업자, 진학자, 군 입대자를 뺀 9만 5천 2백 89명은 무직이거나 미상으로 전체의 34.5%가 대졸 실업자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높은 미취업률은 급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87년의 경우 전체 졸업자의 35.4%, 9만 2천 3백 35명, '86년의 경우 전체 졸업자의 36.2%, 8만 6천 8백 72명, '85년의 경우 전체 졸업자의 33.1%, 7만 2백 74명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최근 몇 년간 미취업자 수는 계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87년과 '88년 미취업자 수만 해도 무려 18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 졸업자들에게 취업 기회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미취업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현안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업 기회가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또 성별 조건에 따라 취업 기회가 달리 주어지고 있는 점 역시 대학교육 결과의 분배라는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88년 5월 한 연구 기관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88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 현황에 있어서 서울 소재 종합대학교 취업률은 48.6%, 단과대학은 56.5%의 취업률을 보이는 반면에 지방 소재의 종합대학교 취업률은 44.6%, 단과대학의 취업률은 43.9%로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취업률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에 따른 취업률에 있어서도 남자의 경우 52.2%의 취업률을 보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전체 여학생의 34.4%만이 취업을 하고 무려 60.0%에 달하는 3만 2천 7백 46명(여학생 전체 졸업자 5만 4천 5백 41명)이 미취업 상태에 있다 한다.

현실적으로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에게 양적 측면에서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적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상대적으

---

로 조건이 불리한 회사나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질적인 면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에게 돌아가는 직장의 질은 더욱 나쁜 경우가 많다. 심지어 남자들과 똑같이 4년제 대학 전과정을 이수하고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88년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순수 취업률이 47.1%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만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성별 조건에 따라 똑같은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평등주의·능력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색 있는 대학 육성, 지역 실정에 맞는 대학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교육이 현실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도 금물이지만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학을 다니는 것도 학문을 탐구하고 여러 방면의 교육적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데 있다고 믿는다.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일깨울 수 있을 때 이는 곧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좋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개인적 관심과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크게 보아 옳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크게 보면 '옳은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크게 보아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개인에게 불만족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보아 '옳은 것이 항상 좋은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의 眞理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고학력자의 배출은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교육력의 정도, 산업 구조, 특이성, 인구 변화 추이, 미래에 대한 견당 등 이들 요인의 역학적 관계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좋은 것'에 따라 대학교육을 지나치게 현실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대학을 정점으로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교육 유인 체제는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상승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라는 점에서 그 개선책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 사회가 심각한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갖고 있고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교육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더 이상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현안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고학력 실업자의 계속적 누적은 치명적인 정치적·사회적 반작용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끝으로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못지않게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